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2021년 국내 ESG 경영 동향 및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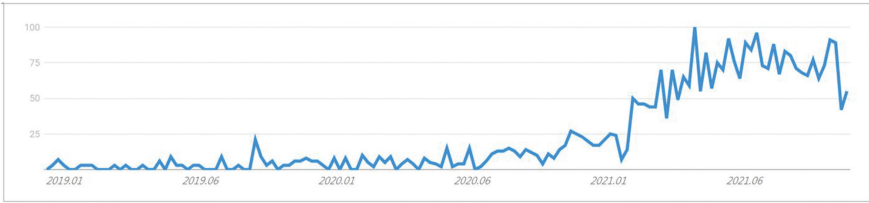
글_백인규 한국딜로이트그룹 ESG센터장

2021년 국내 경영계를 뜨겁게 달군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ESG 경영’일 것이다. 기업 경영 전반에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ESG 경영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기업들은 올 한 해 ESG 경영 선포 및 전담조직 설치, 관련 사업 활동 추진 등을 통해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단순히 논의되는 화두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명백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입증하였다. 한국딜로이트그룹 ESG센터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1년 1분기-3분기 동안 관련 언론 보도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ESG 경영 추진 성과를 진단해보고, 2022년 준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보 검색량 추이는 검색 대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최근 3년, 국내의 ‘ESG’ 구글(Google) 검색량 추이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 중순 정점을 찍고, 1분기-3분기 내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2021년 국내 ESG 경영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 기간(2021년 01월-09월) 총 3,602개의 ESG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한국딜로이트그룹 자체 산업/기업 분류 기준에 따라 총 1,631개 기사(산업 동향 기사 361개, 주요 기업 기사 1,270개)를 추출했으며, 이를 다시 ESG 경영 관련 12개 세부 활동 기준에 따라 기사에서

구글 ESG 검색량* 추이



▲ 자료 출처: 한국딜로이트그룹 ESG센터 분석; 구글 트렌드(2021.10.16 기준, 2019.01.01~2021.09.30 기간 국내 'ESG' 검색량)
*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시점을 100으로 하며 각 시기별 상대적 검색 빈도를 의미.

다루고 있는 활동을 총 2,213건의 각각의 활동으로 세분류했다.

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19개 산업군별 추진 실적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산업군과 그룹사 전반을 포괄하는 '공통' 부문(전체 비중의 16.9%)을 제외하고, 개별 산업의 경우 금융(25.6%), 석유화학(9.7%), 유통/물류(8.5%), ICT(7.5%), 건설/기계(7.1%), 소비재(5.7%) 산업 순으로 높은 추진 성과를 보였다. 가장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한 금융 산업의 경우 올해 3월, 112개 국내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금융 지지 선언을 한 것에 이어 책임 투자 및 임팩트 투자 등 다양한 지속가능 금융 활동을 추진하며 타 산업 대비 선제적 행동의 폭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상위권에 속한 석유화학 및 ICT, 건설/기계 업종은 직/간접 온실가스 다량배출 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대한 압력이 높다는 점, 유통/물류나 소

비재 산업의 경우 사업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환경 소비자 행동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2.0%), 자동차(1.4%), 발전/에너지(1.1%) 등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높으면서도 아직 추진 실적은 낮은 산업들이 일부 존재했다.

ESG 경영을 위한 활동 측면에서는 '사업 혁신(전체 비중의 22.8%)', 'CSR 활동(12.7%)', 'ESG 투자(11.9%)', 'ESG 정책 수립(10.0%)'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신규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 공정상의 '사업 혁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과거부터 이어온 'CSR 활동'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타 활동 대비 장기간의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을 요하는 '인증 획득(1.9%)', '이니셔티브 참여(2.2%)',

“

국내 ESG 경영은 전 산업군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됐으며, 환경적 영향 최소화가 중시됐다. 또한, 기업들은 ESG 요소 기반 사업모델 및 포트폴리오 혁신과 관련 투자에 우선적으로 접근했다.

”

‘ESG 목표 설정(3.8%)’, ‘외부 공시/평가(4.0%)’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추진 실적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ESG 경영체제로의 전환 시, 필요한 투입 시간과 비용 및 노력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위 결과를 통해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시사점은 개별 산업 및 기업별 추진 여건과 상황이 상이함에도 ESG 경영 활동이 전 산업군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기존 기업의 경영체계 및 사업 구조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 산업의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활발한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두 번째는 ESG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국내 ESG 경영 또한 사회 및 지배구조 측면보다는 환경적 영향 최소화에 무게를 두

는 활동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금융 및 석유화학 등 기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산업군이 선제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는 것과 국내 기업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표방하는 친환경 활동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마지막으로는 ESG 경영 추진 시 기업들은 ESG 요소에 기반한 사업모델 및 포트폴리오 혁신과 관련 투자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하던 관행에 따라 CSR 활동 추진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 이와는 반대로 ESG 경영의 성과관리에 중요한 ESG 목표 설정 및 외부 공시 등의 활동 비중은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은 ESG 경영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견되는 과도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1일-2일 양일 일정으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으로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저탄소를 넘어 탈탄소 경제 실현을 향한 마라톤에 국내 산업과 기업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ESG 경영은 이러한 책임 이행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은 국내 기업들에게 ESG 경영의 신호탄을 울린 한 해였다. 올해는 ESG 경영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높

2021년 국내 산업별 ESG 경영 추진 현황

(단위: 건)

구분	ESG 목표 설정	ESG 정책 수립	전담조직 설치	사업 혁신	업무협약 체결	ESG 투자	이니셔티브 참여	인증 획득	외부 공시/평가	협력사 양성	CSR 활동	기타	합계
ICT	2	15	8	36	19	6	2	6	7	14	35	15	165
미디어		2	4	2	1		1			2	4	2	18
반도체/디스플레이		7	5	5		6	4	5	3	3	4	3	45
전기전자	8	13	9	22	6	5	4	2	3	10	10	11	103
발전/에너지	2	1	1	5	3	6	1		1		2	3	25
광물/금속	1	3	4	17	10	8	1		3	5	7	11	70
석유화학	11	22	3	77	31	25	1	2	10	9	12	12	215
항공/조선			2	3	2	5		1			1	3	17
건설/기계	8	11	7	47	24	21	3	2	7	9	13	6	158
섬유/제지				4	1								5
바이오/헬스케어	3	1	9	3	1			2	3		3	2	27
소비재	9	13	13	39	7	5	2	2	4	7	17	9	127
유통/물류	2	11	10	61	13	9		8	4	16	48	6	188
자동차	2	3	2	6	3	4	1	2	1	2	2	3	31
여행/레저	1	5	4	12	6	3	4	1		1	12		49
금융	25	60	56	31	49	107	22	6	17	31	73	25	567
공공	1			3					1		2	1	8
공통	8	51	42	65	18	53	2	4	24	21	27	60	375
서비스 및 기타	1	3	2	7	1					1	3	2	20
합계	84	221	181	505	195	263	48	43	88	131	280	174	2,213

▲ 자료 출처: 한국딜로이트그룹 ESG센터 분석.

으면서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뛰어들었지만, ESG 경영 도입 확산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022년, 선도기업은 본격적인 이행과 함께 향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등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사회 및 지

배구조 측면에 대한 폭넓은 고려와 ESG 경영 활동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발기업의 경우 국내 ESG 경영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HRD



백인규 센터장

한국딜로이트그룹 ESG센터장. 한국딜로이트그룹 이사회 의장 및 딜로이트 아시아 퍼시픽 이사회 멤버, 사단법인 딜로이트 한미유니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Maryland & Washington, D.C.)로 1996년 안진회계법인 입사 후 다수의 회계감사와 M&A 자문, ESG 경영 관련 강연 활동을 수행했다.